



계명대가 취업면접스킬 강화를 위해 개최한 'K-Job Star 기업 산업 맞춤형 취업오디션'을 진행하고 있다. 계명대 제공

현직 참여 '취업오디션' 취업점 보완·실전 경험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강화 올해만 프로그램 117개 운영

계명대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적극적으로 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계명대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신경쓰고 있다. 계명대에는 현재 학부생 기준으로 1천여 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들은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도 많다.

이런 이유로 계명대는 처음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은 지난 4월 28~29일 이틀간 6명의 유학생 선배를 초청해 강연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근에는 실질적인 취업준비를 돕고자 'K-Job Star 맞춤형 취업오디션'을 열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지난 7~8일 대구도시철도공사, (주)대구은행, 에스엘(주), (주)피에이제이 등 4개 회사가 참여하고, 4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참가 회사별 현직자와 면접 전문가들이 취업오디션을 진행함으로써 실제 면접과 유사한 상황에서 면접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참가한 학생들에게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본인의 취업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첫째 날에는 기업체 정보 수집 및 분석, 자기소개서 기반 직무분석, 기업체 및 직무별 면접 유형 분석, 합격자 면접 사례, 면접 프로세스 이해, 면접 태도 및 스피치 전략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특강이 비대면 실시간으로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둘째 날에는 참가 회사별 면접 오디션이 대면으로 진행됐다. 실제 면접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진행하고, 면접 후에는 면접관을 맡은 현직자와 전문강사들이 '피드백'을 했다.

한편 계명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117개의 취업프로그램에 2만9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취업프로그램 운영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이 이끈다. 2015년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시범 대학으로 선정된 계명대는 5년 연속 우수(최고등급) 대학에 선정됐다.

이성용 계명대 학생처장 겸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지난해 비대면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올해는 대면 프로그램의 비중도 늘려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취업 지원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연정 기자 lyj@maeil.com



대구가톨릭대에서 진행된 직무매칭 페스티벌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담부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 제공

단계별 직무역량 교육 취업률 1위 명성 지켜

(대구경북 대형 사립대)



청년일자리 실무역량 집중 1대1 상담·진로 컨설팅 호평

대구가톨릭대학교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구경북 대형 사립대학 중 취업률 1위 대학의 명성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다.

이곳은 학생 경쟁력 강화 및 사회산업 다변화 대응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직무교육과 프로그램의 적시에 반영하도록 설계한 '적재적소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적재적소 직무역량 레벨업-커리어업-스펙업-체인지업' 등 단계별 직무역량 교육은 물론 마케팅, 웹 크리에이터, 미디어 크리에이터, 현직자 직무 클래스 등 희망 직무와 직군 맞춤형 적재적소 교육으로 학생 참여율을 매년 높여가고 있다.

또한 대학일자리센터 등 학내 총 12개 부서 실무진으로 구성된 '청년일자리 활성화 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대학 내 분절된 진로 및 취업 교육을 통합 연계하고 학생취업 교육 선진화 및 지역청년 일자리 지원, 고용촉진을 위한 대학의 총체적 역량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이연정 기자

캠퍼스 내 진로취업 교육·상담 사각지대 해소 및 교육 소외대상자를 선별 지원하기 위한 'DCU 진로취업 사각지대 ZERO 철린지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다. 대학생들 부족일자, 학업 저성취자, 졸업 후 장기 미취업자, 취업 목표 미설정자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뒤 맞춤형 청년정책과 교육, 1대1 상담 및 진로 컨설팅을 실시해 참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방학 기간에도 대구 시내 등 학생들의 접근 편의성이 우수한 공간을 적극 활용해 '찾아가는 진로취업 커리어 현장코칭' 등 이동식 현장교육 및 상담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가톨릭대의 학생취업 노력의 결과는 올해 초 발표된 대학일자리사업 성과로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운영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대학'에 선정돼, 취업률만이 아닌 취업교육 내실화와 일자리교육 우수성을 대외적으로도 한번 인정 받은 것이다.

또한 국제처 글로벌취업지원팀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해외취업(인턴)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케이무브(K-Move) 일본 카타이과정, DCU 해외취업아카데미, 동·하계 글로벌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에는 해외취업주간(해외취업 설명회, 전문컨설팅, 동문선배 멘토링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연정 기자



영남대학교는 정부기관, 공기업, 대기업 등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사들을 올 2학기 진로교육객원교수로 임용했다. 영남대 제공

CEO급 인사 12명 영입 진로지도 객원교수로



공기업·대기업 등 경력 활용 교과목 개설 역량 개발 코칭

정부기관, 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외국계기업, 언론사 등에서 주요 요직을 거친 CEO급 인사들이 대거 영남대학교에 합류해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코트라(KOTRA), 한국토지공사, KBS, 삼성, LG, 롯데, 신세계 등 이름만 들어도 정당한 기관과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온 인사 12명이 이번 2021학년도 2학기에 영남대학교 진로교육 객원교수에 임용된 것. 영남대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진로교육객원교수 임용은 신입생 때부터 체계적인 진로탐색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영남대의 CDP(Career Development Path) 코칭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에 임용된 교수들은 정규 교과목 '진로탐색'과 '진로코칭프로젝트'를 맡아 그동안 쌓은 전문 지식과 현장경험 노하우를 영남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수할 예정이다.

영남대 영어영문학과 출신으로 KOTRA 해외무역관장과 엑스코 대표

이사를 역임하고 이번에 진로교육객원교수에 임용된 김상욱 교수는 "40년 이상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후배들에게 직접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며 "스승이자 선배로서 전문 지식은 물론 삶의 지혜 등 지금까지 몸소 체험한 모든 경험을 아낌없이 전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기대도 크다. 이번 학기 처음 개설된 두 교과목의 모든 분반에 수강생들이 가득 찼다.

'진로탐색' 과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분야별 전문가 특강 형식의 강좌다. 이번에 임용된 교수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각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청해 15주간 릴레이 특강이 펼쳐질 예정이다.

'진로코칭프로젝트'는 소규모 그룹별 코칭 교과목이다. 진로교육객원교수 1명이 한 학기 동안 15명의 학생을 전담해 지도한다. 학생들은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외국계기업, 공무원, 전문직, 해외취업 등 다양한 진로로 특별 프로젝트반에 참여해 진로교육객원교수로부터 맞춤형 지도를 받는다.

최외출 총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주는 교수이자 대학 생활과 진로 탐색의 멘토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적성을 찾고, 진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대학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연정 기자

찜찜한 소변, 침침한 눈, 지구력까지 하루 한알로!

밤새 화장실 들락날락... 흐릿하고 침침한 눈 하루 한 알로 활력있게!

남자가 중년을 넘어서면 시들해진 전립선과 침침한 눈, 떨어진 지구력이 고민이다. 유니바이오의 '쏘팔루테인'은 전립선, 눈 노화, 지구력까지 남자의 3가지 걱정을 하루 한 알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남자가 나이 들면 소변 참기가 힘들고 소변줄기가 약해지는 걸 경험한다. 배뇨 후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찜찜함과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는 잠을 설치는 불편함도 마찬가지.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인 로르산은 식약처로부터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쏘팔루테인으로 전립선 건강을 지켜 남자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자!

중년 이후부터는 눈 건강에도 신경써야 한다. 20세 이후 루테인이 감소하면서 나이들수록 눈이 침침해지는 데 루테인은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의 구성성분으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외부로부터 보충해야 한다. 루테인이 함유된 쏘팔루테인을 꾸준히 섭취하면 망막 및 황반 성분을 보충, 맑고 선명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에 중년남자의 지구력 증진과 활력을 위한 옥타코사놀과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위한 아연까지. 쏘팔루테인에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 4종을 1일 섭취량 최대치로 채웠다. 전립선, 눈 건강, 지구력... 따로 챙기느라 애쓰지 말고 이제 '쏘팔루테인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하다.

쏘팔루테인은 ▶ 노화로 전립선 건강이 걱정인 남성 ▶ 눈이 침침하거나 흐릿해짐을 경험하신 분 ▶ 스마트폰을

자주 들여다보시는 분 ▶ 활력증진이 필요하신 분들께 적극 권한다. 유니바이오에서는 출시를 기념해 쏘팔루테인 2개월분에 2개월분을 더한 총 4개월분을 200,000원에서 약 50% 할인해 99,900원에 판매한다. 선착순 100명에게는 장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1개월분도 무료로 드린다.

www.unibio.kr

〈신용카드 3~6개월 무이자 할부〉

▶ 문의전화 : 080-810-1100



쏘팔루테인

하루 1포로 장 속까지 시원~하게! 쾌변

무수바바로인 26mg 함유 섭취 시 빠른 시간 내 활발한 배변활동을 체험

배가 아파 변기에 앉아 있어도 소식은 없고 어쩌다 볼 일을 봐도 영 시원하지가 않다. 한국인 10명 중 3명은 이 같은 배변 문제로 고생한다. 나이 들수록 장 운동은 느려지고 대변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진다. 따라서 40대 이후부터 장 건강과 배변 활동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쾌변을 위해서는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등 운동을 생활화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등을 많이 섭취하면 대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단축해 장건강에 도움을 준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의 '장쾌장'은 알로에 아보레센스를 주원료로 담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알로에 아보

레센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배변 활동 원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알로에 아보레센스에 함유된 무수바바로인은 장 점막을 자극해 연동운동을 촉진시켜 배변활동 원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다. 장쾌장은 섭취 시 빠른 시간 내 활발한 배변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으며 꾸준히 섭취하면 장운동의 리듬을 유지하여 자연스런 배변 습관을 되찾는데 도움을 준다. 장쾌장에는 차전자피 분말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다시마 분말, 유산균혼합물, 사천속 분말, 통통마디 분말 등의 부원료도 들어있다. ▶ 장쾌장은 평소 장 기능이 약하신 분 ▶ 활동량이 적어 장의 연동운동이 부족하신 분 ▶ 화장실에 앉아있는 배변시간이 긴 분 ▶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남아 있으신 분들께 적극 권한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어에서는 장쾌장 출시 4주년을 기념해 2개월분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1개월 분을 추가로 드린다. 이번 행사는 200세트 한정 판매로 진행한다.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가스가 잘 차거나 아랫배가 묵직해 고민이라면 하루 한 포 장쾌장으로 굿고 시원한 배변을 경험해보자.

www.boryung365.com

〈신용카드 3~6개월 무이자 할부〉

▶ 문의전화 : 080-808-3300



장쾌장 _ 보령컨슈머헬스케어

〈광고〉